

지니는 特異한 個性과 그 設彩法等으로 해서 李朝 그림으로는 異樣한 그림이라고 생각되기 쉬웠던 것이고, 日本사람들 立場에서는 中國의 宋代 毛益이나 또는 錢舜舉 王若水 같은 이들의 畫風에 견주어 볼만할 貫祿 있는 그림으로 여겨졌던 까닭에 부질없는 여러가지 해석을 가지기 쉬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李巖에 관한 비교적 확실한 記錄은 「稗官雜記」의 다음의 記事이다.

「李巖 字靜仲 臨瀛大君璆 曾孫 燕山五年己未生 授杜城令 翎毛雜畫則 有宗室 杜城令其最著者」

또 前記 岸氏 所藏의 猫狗圖는 이미 數世紀前부터 日本에서 保存되어 왔으며, 國立博物館 母狗圖는 一九一六年 一月二十日에 朝鮮總督府가 二〇〇圓에 사들였고, 德壽宮美術館 翎毛圖는 同年 六月 九日에 日本人 池田虎吉에게서 사들인 것으로서 이번 필라델피아 美術館 新收狗兒圖와 함께 앞으로 그 出處들을 좀더 밝혀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道岬寺 解脫門 上樑文

尹 武 炳

道岬寺는 全南 靈岩郡 西面 道岬里에 位置한다. 解脫門은 그 入口에 서 있는 寺門이다. 몇 해 전에 解體 修理한 無爲寺 極樂殿하고는 한十里 떨어져 있으나 같은 月出山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建物은 所謂 柱心包집 系統에 屬하는 建築이지만 細部 形式에서도 恰似한 點이 많다. 양쪽 모두 國寶로 指定되어 있는데 그 年代도 비슷한 時期에 前後해서 建立된 것으로 推測되어 왔었다.

지난 五月에 解脫門을 修理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上樑文이 發見되었다 한다. 그 發見位置는 지붕 마루도리의 中央部에 있는 도리 밑을 받친 도리받침장혀 上面에 墨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成化九年癸巳五月

初七日立柱上樑

大功德主

大王大妃殿下壽萬歲

王大妃殿下壽萬歲

因壽王妃殿下壽萬歲

王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諸年

王師判禪宗任一都大禪

師守眉廉大施主

廉都大木大禪師覺如

嗣大木大禪師義明

行衆

海明 省明 祖明 海宗

大化主大禪師持寺洪月

書記入選篤資

이 上樑文은 現地에서 工事關係者가 文教部에 報告한 것을 그대로 베껴 놓았는데 誤讀된 글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第十行과 十一行에 「廉」이라 한 것은 兼字 十二行의 「嗣」는 副字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第九行에서 十行에 걸친 「都大禪師」는 判禪宗事가 된 大禪師를 말하며 그 위의 「旺一」 즉 國一은 高麗末 以後로 高僧에 對한 賜號 가운데 흔히 使用되어 있다. 國一 밑에 大禪師라고 繼續하여 法階의 하나처럼 쓰는 境遇가 많다. 第十三行의 「行衆」은 大木 즉 木手 以下の 工事に 關係한 사람들을 가르킨다. 十五行의 「持寺」는 住持 밑에 있는 寺職의 하나이지만 여기에서는 住持職을 代行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守眉가 이 절에 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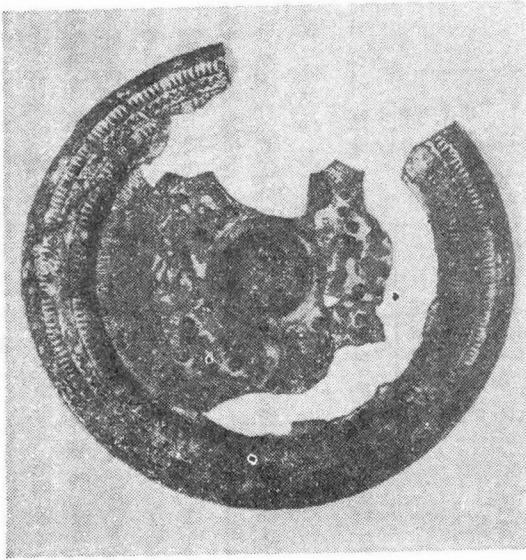
道岬寺의 重創에 對하여서는 現在 境內에 남아 있는 道岬寺 道說·守眉兩大師碑에는 天順 元年 즉 우리나라 世祖三年(一四五七)에 守眉가 信眉하고 같이 重創한 것처럼 傳하고 있다. 信眉와 守眉는 그 當時에 이름난 高僧 들이다. 그러나 世祖實錄에는 二十年(一四六四) 四月乙未

條에 世祖가 全羅監司에 對하여 守眉의 道岬寺 重營을 助緣하도록 下諭한 記錄이 보인다. 이 上樑文의 첫머리에 실려 있는 成化九年(一四七三) 보다는 九年 앞선 일이다. 그러니까 이 解脫門은 제일 마지막으로 營建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 된다.

앞서 말한 無爲寺 極樂殿은 修理工事當時 後佛壁에서 發見된 銘文에 依하여 成化十二年(一四七六) 以前의 建立임이 밝혀졌었다. 成化十二年 以前이라 하여도 결코 몇해씩이나 遡及되지는 않으리라고 推測되었던 것이다. 이번 解脫門에서 發見된 成化九年의 上樑文은 無爲寺 極樂殿의 完成年代에 對하여서도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重要な 資料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全北 益山出土 六朝鏡

洪 思 俊



全北 益山郡 三箕面 蓮洞里의 胎峰寺敷地에서 六朝鏡(破) 一面이 發見되어 一九五七年 十月 四日 扶餘博物館으로 들어 왔다.

鏡은 거의 切半이 깨져 없어지고 全面 黑鏽에 덮였으며 直徑一四·四cm 緣高一cm 內區主文은 神獸文이고 一段 높아진 外區에는 雙平行線이 그다그文帶를 가운데에 둔 內外二帶의 鋸齒文이 둘러지고 있다. 內區周緣에는 現在「家人民息 胡羌捺滅 天下復 風雨」의 十三字가 아직 남아 있다.

이와 비슷한 內容의 銘文을 가진 것으로 年代가 確實한 것으로는 太康三年鏡(東晉·武帝 西紀二八二年) (梅原·漢三國六朝紀年鏡圖說 (P. 一〇九)이 있으며 그 銘文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太康三年歲壬寅 吾作竟 幽凍三商 四夷服 多賀國家 人民息 胡虜殄滅 天下復 風雨時節 五穀熟 太平長樂
南韓에서 發見되는 中國六朝鏡으로서 初出의 確實한 例라고 할 수 있으며 重要な 發見이었다.

原州의 寺蹟·興法·法泉·居頓

鄭 永 鎬

一、興法寺址：江原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興法洞

서울驛 또는 淸涼里驛에서 中央線으로 約三時間 江原道에 들어서면 서 첫驛인 長峴에서 下車한다. 이곳서 長峴江을 건너 流域을 따라 約三 軒에 安昌國民學校가 있고 다시 約一軒로서 興法洞에 이른다. 이곳이 바로 興法寺址로서 洞里入口의 언덕에서 바라보이는 넓은 台地는 높이 約三米 길이 約六〇米의 石築위에 있으며 門址와 二層基壇上의 三層石塔 一基가 있어 高麗初의 建立으로 推定된다. (塔高三米七〇釐) 創建年代는 알 수 없으나 東國輿地勝覽에 들어 있어 李朝初期까지는 存續되었던 듯 하며 그 후 寺址에는 數種의 石造物만이 殘存하였다. 景福宮에 移建된